

투데이 칼럼

함께해요 '소방출동로 확보' 생명을 살리는 '모세의 기적'

우리는 기적을 먼 나라 이야기, 종교적 설화로만 생각한다. 성경 출애굽기에서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의 땅으로 가던중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모세의 기적'이 대표적 사건일 것이다.

119는 항상 긴급상황(화재, 구조, 구급, 생활민원 등)에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골든타입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정해진 시간내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화재는 최성기에 도달하기전 7분전이며 심정지(응급환자)의 경우 산소공급의 최대 지체시간인 4분으로 소방차는 골든타입시간 전에 도착하기위해 사이렌을 울리고 중앙선을 넘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 위를 달린다.

하지만 현실은 소방차가 도로 위에 정체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 소방차가 도로위에 서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주정차현



손진영

익산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 소방장

차량,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무엇보다 소방차량에 양보 하지 않는 미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반면 성숙한 시민의식 사례를 보면 양수가 터진 산로를 병행이송중 정체된 부산 도시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달리던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좌우로 불어 구급차에 길을 내주었던 부산도시의 기적을 한번쯤 보거나 들었을 것이다.

독자분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모세의 기적'에 동참할수 있다.

그렇다면 소방출동로 확보 즉 생활속 '모세의기적'을 실천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소방차가 경광등과 사이

렌을 켜고 운행할 때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양보하여야 한다.

양보운전방법으로▲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 진행시 횡단보도 잠시 멈추기▲일반도로에서 우측가장자리 일시 정지하기▲교차로에 긴급차량 진행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가장자리 일시정지하기 등 긴급차량 확인시 양보를 우선시 하여야 한다.

둘째, 고층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주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및 소방대원이 활동하는 반드시 확보 되어야할 최소한의 구역이다.

2010년 10월 부산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에서는 전용구역 확보 어려움으로 단 8분만에 4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38층까지 연소 확대된 안타까운 사례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셋째, 소화전 및 좁은 도로? 주택가 등의 불법주정차를 지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및 소방 시설 등으로부터 5m이내 주차차를 금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시 소방차량이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위한 곳이기 에 그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화재? 구급활동이 지체되면 그 피해는 결국 나 자신가족이 될 것이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순간에도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방차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그 기적은 독자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함을 잊지 말고 소방대원과 함께 '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설

일부 국회의원 학위 논문 문제

일부 국회의원의 학위 논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도교수에 게 연구용역을 주거나 지도교수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학위를 딴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어느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땀다. 해당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은 당시 논문 지도 교수에게 수천만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재료의 특성을 연구한 논문은 이론적 배경 부분이 같은 대학원에서 한 해 먼저 나온 석사 논문들과 소제목, 문장, 각종 표까지 20여 쪽에 걸쳐 똑같다. 논문의 핵심인 시험 결과의 설명 부분에서도 동일한 문장이 여러 개다.

표절 여부를 검증한 연구 윤리 전문가는 명백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의원은 같은 해 논문 지도 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대학 부설연구소에 장학금도 기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부 부처 차관과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학위까지 받았다. 석사 논문을 분석했다니 출처를 제대로 안 밝혀 표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의원은 자신의 지도 교수가 인용 표시를 대신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그가 쓴 논문은 다른 대학 김 모 씨의 2년 전 박사학위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친다. 한두 곳이 아니지만 모두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표절 프로그램 검사 결과는 표절을 34%에 이른다. 연구 윤리 전문가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활용했다'라면서 "전형적인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은 자신이 직접 논문을 쓴 건 맞는데, 인용 표시 등은 지도 교수가 대신 했다고 밝혔다. 석사 학위를 딴 뒤 박사과정에서는 학술 논문을 썼는데 인용 표시 등을 또 지도 교수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사실이 라면 특별대우로 볼 수 있다.

동학혁명과 영학당 무장봉기

동학혁명은 조선 고종 31년(1894)에 동학교도 진봉준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혁명이다. 교조신원운동(敎祖伸源運動)의 목살 그리고 전라도 교부 군수 조병갑의 불법 착취와 동학교도 탄압에 대한 불만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혁명은 봉건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농민운동으로 확대되어 전라도·충청도 일대의 농민이 참가했다. 그러나 청·일 양군의 진주(進駐)와 더불어 실패했다. 혁명은 실패했으나 호남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품을 꾸기 시작한 영학당(英學堂)이 있었다.

동학당(東學黨)의 잔여 세력이 1898년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 대신 영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재건한 조직이다. 위장을 위해 영국인 선교사를 초빙하여 설교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1898년 당시 영학당의 수계장(首長)은 정음의 최일서(崔一西)였다. 이들은 당시 전라도의 교부·흥덕·교창·장성·영광·무장·함평 등지에 조직망

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봉기한 흥덕(興德) 두령 이화삼(李化三)은 1898년 12월 300여 명의 농민들을 이끌고 관아에 들어갔다.

민회(民會) 형식으로 농민들의 의사를 모아 군수를 내쫓았다. 그러나 봉기는 사흘 뒤 광주(光州)에서 파견된 관군에 의해 진압되고 이화삼 등은 체포되었다. 영학당 등 농민 400여 명은 교부 관아를 점령하고 무기를 탈취했다.

자신들이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왜양(斥倭洋)'을 위하여 봉기하였음을 방문(榜文)을 통하여 천명했다.

이들은 흥덕과 무장의 관아도 점령했다. 교창을 거쳐 영암의 민란을 지원한 다음, 광주·전주를 거쳐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을 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교창 관아 공격에서 관군에 패퇴, 해산되고 말았다. 한편 관군은 영학당의 재기를 염려하여 교부·태인·정음·부안 등지에 210명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한전 전북본부, APT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한국전력 전북본부가 2021년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아파트 내 변압기가 노후되거나 과부하에 따른 고장으로 발생하는 정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 내 수전변압기는 한전이 공급하는 특고압 전기를 아파트 단지내 개별 세대·엘리베이터 등 공용설비에 공급하기 위해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노후된 변압기는 불시교장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냉난방기 사용 증가에 대응할 만큼 용량이 충분할 경우가 적어 여름철과 겨울철 아파트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개별 아파트 수전변압기는 한전이 아닌 아파트 관리주체가 소유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전력설비로 변압기 노후화나 과부하에 의한 고장으로 정전되는 책임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 있다.

하지만, 한전은 대단위 아파트 정전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5년부터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은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세대당 용량이 5kV이하인 노후 변압기를 보유하며, 서울 및 6대 광역시 때 중위값 평균 이하(5.7억)인 아



정지은

한전 전북본부 고객지원부 인턴사원

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기준에 따라 노후도, 세대당 용량, 전염병적 등을 종합해 평가 점수로 환산하여 지원 대상 아파트를 결정한다.

특히 올해에는 노후 변압기 조기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도가 높

은 20년 이상~25년 미만에 최고 가중치를 반영하며, 세대별 및 공용이 혼재된 변압기가 있는 아파트가 포함된 수 있도록 변압기 용량을 5kW까지 상향해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기준을 서울 및 6대 광역시 매매 중위값 평균을 기준으로 중위값 이하는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더불어 한전에서는 선정된 아파트가 노후된 변압기(1kW/당) 교체할 경우 2만5,000원(상한), 저압차단기(정격 1A/당) 교체의 경우 1,440원(상한)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에서는 내달 7일(금)까지 해당 지역의 한전 지사로 신청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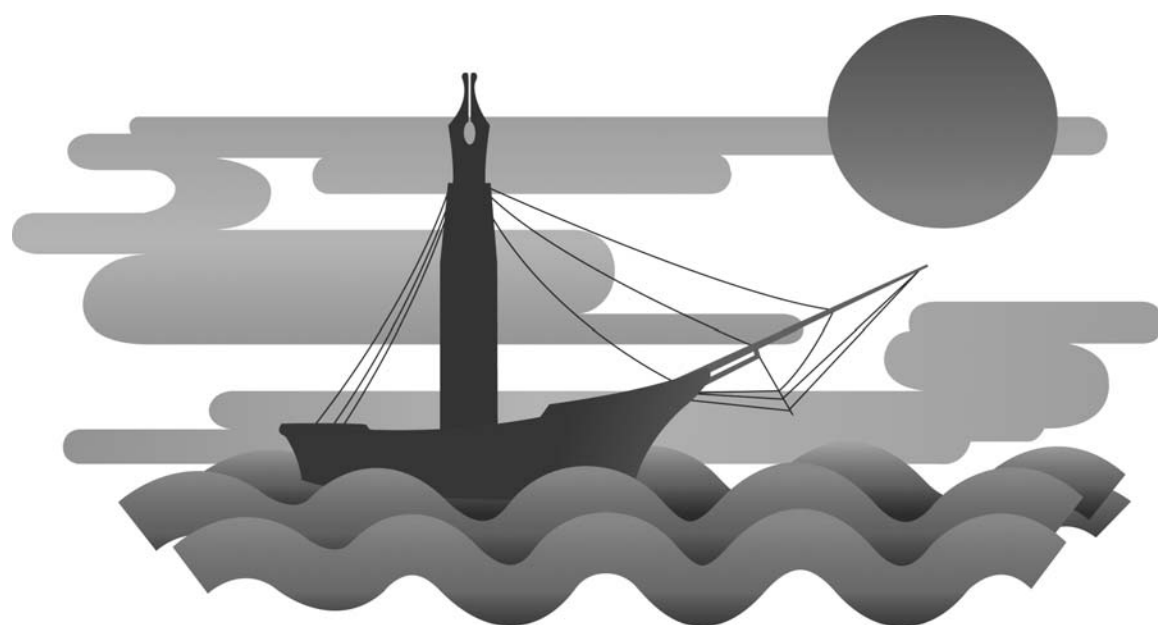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